주황색 지붕으로 통일돼 있지만 각기 다른 디자인의 주택들이 들어선 프랑스 리옹의 구도심 전경.

에너지자립형 주택단지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주택단지는 3~5층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으며, 외부 소통은 노면전차가, 단지 내부 이동은 자전거와 도보로 가능하다.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9〉 유럽편 '도시와 주택'

과거와 현재 조화롭게 공존하는 '주황의 도시'

붉은 벽돌·지붕의 단독주택들 도심에 활력
빽빽한 아파트 대신 구불구불 미로 골목 간직
차없는 도로·에너지자립형 친환경 단지 특징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주택이다. 주택은 해당 도시의 문화·경제·사회 등을 그대로 투영하는 시대 산물이다. 공원이나 도로, 광장, 상가, 가로시설물, 수도·하수·전기 등 기반시설은 단지 주택의 '지원시설'에 불과하다.

주택은 또 도시가 품고 있는 주민들의 사고를 반영하는 다양성의 산물이다. 부지 규모, 소유주의 수요에 따라 갖가지 디자인이 가미되는 단독주택, 그리고 소규모 집단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대규모 집단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도시다.

하지만 광주는 아파트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등산, 광주천 등 어디를 보려해도 그 앞에는 아파트가 있다. 도시 외곽의 택지지구만이 아니라 도심 내 녹지, 학교, 공터 등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거기에 과거 단순히 거주하는 것 자체에만 비중을 두고 아무런 특징 없이 지어진 무국적 단독주택 자리에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토지 가치를 높여 이득을 남기려는 토지소유주, 건설업체와 인구 유입, 그로 인한 세수 증대를 기대하는 자치단체로 인해 아파트의 높이는 이제 50층도 넘어설 기세다. 이렇게 가다간 광주는, 지역공동체가 사라지고, 경관과 문화유산의 가치도 찾아볼 수 없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들만이 자리한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아파트는 주변과의 소통이 없다. 단지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자동차로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을 찾아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주변 점포나 시장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 대형 마트가 꾸준히 들어서는 이유도 이 같은 '아파트 난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런던은 온통 주황색의 도시다. 도시 전반에 붉은 벽돌과 주황색 지붕의 단독주택들이 넓게 포진하고 회색빛 벽돌의 근대건축물들이 도심 곳곳에서 중요 포스트가 되고 있다. 단조로운 구성이 이지만 주택마다 조금씩 다른 매력과 디자인이 숨어있다. 런던 지자체는 최근 늘어나는 이민자를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주택을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 리옹의 구도심 내 구불구불한 '미로' 골목길은 과거 레지스탕스의 주요 거점으로, 아직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물론 그 주변의 주택가도 옛 모습 그대로다. 고작 1~2명만이 통행이 가능한 미로에는 레지스탕스가 아닌 예술가들과 관광객들이 대신 드나들고 있다. 옛 주택지 한 가운데 위치한 8층짜리 고등학교 건물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거리, 광장, 상점, 음식, 역사, 예술, 자부심 등이 구도심 주택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이곳을 최고의 장소를 만들고 있었다. 퓌비에르 대성당에서 바라본 리옹의 시가지는 주황색 지붕의 3~5층 연립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지어진 주택도 이러한 틀 내에서 짓도록 하는 적당한 규제가 통일되면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한 것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아파트 차양은 내부가 아닌 집 밖에 차양을 설치해 아예 열이나 바람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다. 주거지는 과거 중세·근대 건물과 유사한 형태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로 주로 구성돼 있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봉주택단지는 친환경 주택단지로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1973년 오일쇼크, 1986년 옛 소비에트 연방의 체르노빌사건을 계기로 친환경 운동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태양열주택단지와 빗물 재생 등 에너지자립형 주택단지를 짓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봉주택단지로, 현재 18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3~5층 규모의 연립주택의 디자인은 각기 다르며 단지 내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고 외부와의 소통은 노면전차, 내부에서는 자전거 및 도보가 이동수단이 된다. 자동차 운행 가구에는 일정한 벌금이 부과되며 거주자의 35%가 15세 이하인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심지어 어린이자전거까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프라이부르크에는 에너지 제로 주택은 물론 에너지를 남기는 '에너지 플러스 주택'까지 공급돼 있으며 시 당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부유한 계층과 영세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980년대 들어선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태양열주택단지(사진 위). 벽이 아닌 화단으로 주변과 소통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단독주택.